

배제의 민주화, 종족 · 종파주의로 되돌아온다

글 **이유경** 국제분쟁전문기자
lee@penseur21.com

아시아 인종, 소수민족 갈등과 민주주의

소수민족 분쟁에 휩싸인 미얀마와 선거

가 80 1935 “ ” . 20 가 가

135 (), 135

3 (Arakan Army, AA)

2012 가

(NLD) 11 가 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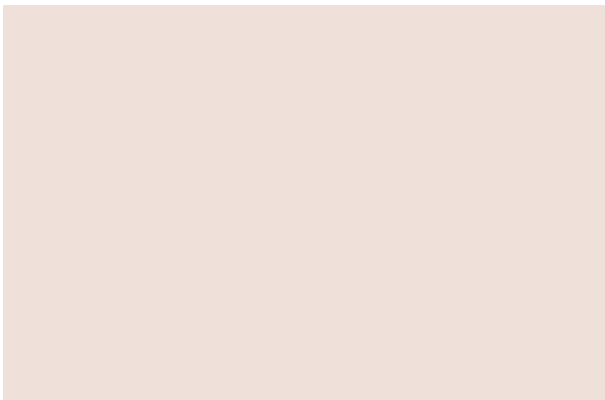
NLD ‘ ’ . NLD

11 1,171 1,138

. NLD 1,127 40%가

NLD . 9 8

가 (Kayah, Karenni) .



(New Masoeyein) 가 가

가 가

가

(U Wirathu) 가 “ (Bengali)”

(MaBaTha,)’

3 가 ‘ ’ 969

250

3 , 14

12

80~100 2013

(Meiktila) , (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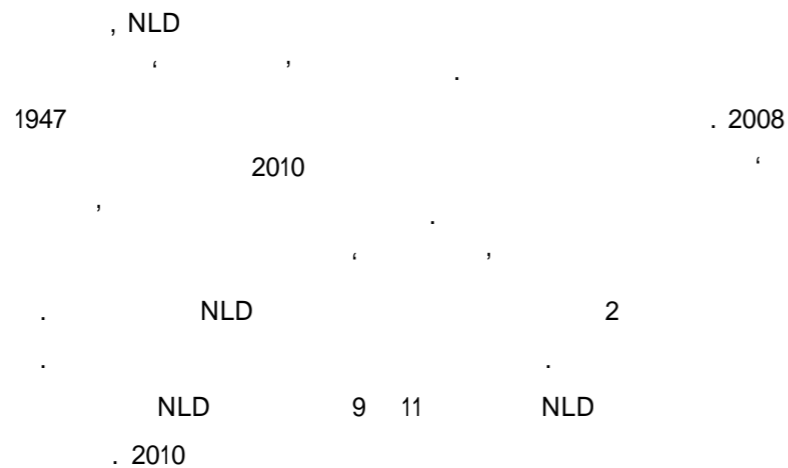
* 미얀마 로힝야 거주 구역 아웅 밍갈라. 2012년 반 로힝야 무슬림 학살 이후 14만 명이 국내피난민(IDPs) 캠프에 갇혀 있고, 12만 명이 난민선을 타고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. © 이유경

* 버마 '주류 소수민족' 무장단체들 통치구역 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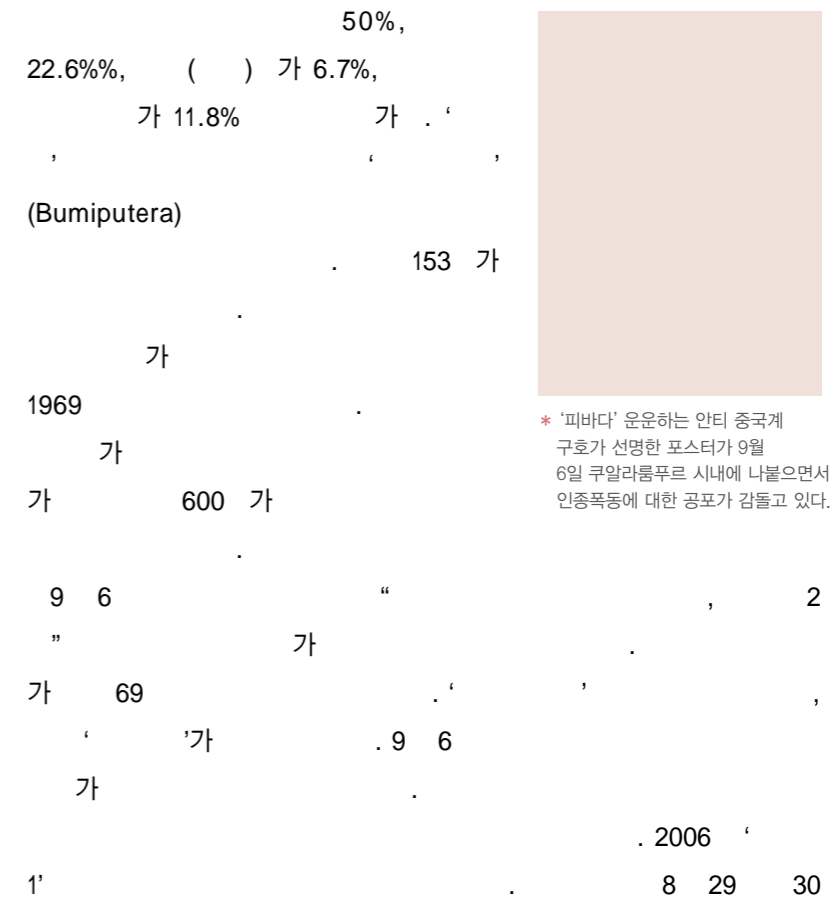
* 2013년 88항쟁 25주년 기념행사장에 참석한 아웅 산 수 치. 아웅 산 수 치와 NLD는 소수민족 문제에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.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도 거의 모든 소수민족 지역에 NLD 후보를 내, 소수민족과의 '연대'나 '권력분산' 보다는 NLD 깃발로의 권력 집중을 지향하고 있다. © 이유경

“NLD에게 표를 모아주십시오.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면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.”



“(군사)정권이 백만 명이 넘는 벙갈리들을 (선거에 이용하기 위해) 라카인 주 (아라칸 주)로 데려왔다.”

베르시와 레드셔츠의 대립, 위기의 말레이시아



* '피바다' 운동하는 안티 중국계 구호가 선명한 포스터가 9월 6일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나붙으면서 인종폭동에 대한 공포가 감돌고 있다.

30 가 ‘ 4’ 34
(1MDB) 7
(UMNO) 57
2008 , 2013

* 2013년 5월 말레이시아 총선 이후 야권 연대인 ‘인민동맹(PR)’이 더 많은 득표에도 불구하고 집권에 실패하자 야당 지지자들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. © 이유경

UMNO 22
가
1MDB
UMNO (PSM)
<Green Left Weekly>

“마하티르는 나집으로 인해 몰락해 가는 UMNO를 구조하는 중이다. 나집 때문에 UMNO가 무너지면 (말레이 정치 헤게모니를)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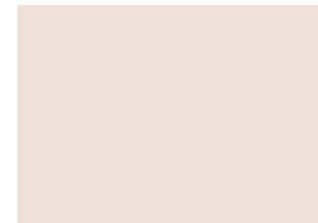
종파극단주의와 IS, 그리고 시리아 난민

IS
가 , IS
IS가
가 (Dr. Anas al Tikriti)
< >

“사담 정권의 독재와 억압에도 불구하고, 미국의 침공 전 이라크에는 단 한 명의 테러리스트도 없었다. 단 한 건의 자살 공격도 없었으며 시아 수니 종파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 본 적도 없다.”

가 가
가
IS
(Iraqi Republican Guard) 40
가.
6 2 가 “IS
”(Nothern Offensive)
(Izzat al Douri)
IS 가
IS
(Tarek Masud)

< > 가 “ 가 ‘
,
.”
, ‘ ,
가 6 < >
가 가



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
태국 방콕에 베이스를 두고 아시아 분쟁과 인권 문제를 집중 취재하여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. <한겨레21>과 독일진보연론 <Neues Deutschland> 등 한국어, 독일어, 영어권 독자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. 블로그 ‘Another WORD is Possible’(penseur21.com)을 운영중이다.

“구세력을 민주화 질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, 그들이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훼손하도록 길을 터주는 셈이다. 모든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앉아 논의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.” **민주누리**